

## 의정부소방서, 오는 8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1441곳 선제적 화재예방

이시모 인턴기자 | 승인 2024.07.04

의정부소방서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1천441곳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에 나섰다.

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휴양시설 여행객 증가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큰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화재예방 활동을 시행 중이다.

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는 모두 168건으로 전체화재 1천 84건 가운데 15.4%를 차지했다.

여름철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요인이 67건(39.8%)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주의 61건(36.3%), 기계적 요인 26건(15.4%)이 뒤를 이었다.

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방안으로 ▶숙박업과 다중이용업 같은 다중이용시설 1천441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▶화재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▶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▶캠페인과 언론홍보로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를 진행한다.

문태웅 소방서장은 "철저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만들겠다"고 했다.

의정부=이시모 인턴기자 simo@kihoilbo.co.kr



